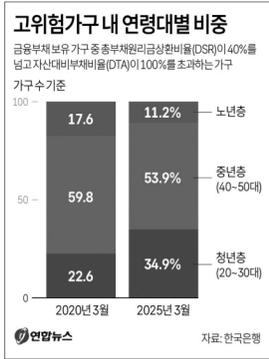


청년 고위험가구 급증...부채상환 부담 '빨간불'



46만가구 중 35%가 20~30대...6년새 12.3%p ↑

주택구입·주식 투자 영향 금융부채 2.4배 급증

주택과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낸 청년들이 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연령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고위험가구 중 20~30대 비중이 3명 중 1명으로 확대되며 청년층 부채 리스크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가구 45만9000가구 중 20~30대 청년층이 차

지하는 비중은 34.9%로 집계됐다. 2020년(22.6%)보다 12.3%p 확대됐다. 중년층(40~50대)과 노년층이 각 53.9%, 11.2%로 2020년(59.8%·17.6%)보다 축소된 것과 대조적이다. 고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리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년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도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7년 3월 부채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청년 고위험가구가 진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134에서 지난해 3월 318로 약 2.4배로 뛰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 가구가 주택 구입, 주식 투자 등을 위해 부채 차입에 나서면서 다른 연령층보다 청년층 고위험가구의 증가 폭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3월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고위험가구 수와 금융부채도 늘었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가구 수는 45만 9000가구로, 1년 전인 2024년 3월(38만 6000가구) 약 7만3000가구(19%) 증가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0%로 뛰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96조1000억 원으로, 전체 금융 부채의 6.3%를 차지했다. 이 역시 1년 전(72조2000억 원·4.9%)보다 규모와 비중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2024년 3월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

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2025년 3월 이후 수도권 집값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고위험가구 비중이 가구 수 기준 3.6%, 금융부채 규모 기준 5.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도는 26일 영암군 군서면 영암군농협 통합RPC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영암 통합RPC 신축...“전남쌀 유통 거점 확충”

하루 80t 처리 가공시설 구축 230억 투입 현대화 연말 준공

전남도가 쌀 가공·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거점 구축에 나섰다. 영암 통합RPC 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 관리와 유통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6일 영암군 군서면 영암군농협 통합RPC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식

을 열고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와 영암군, 농협 관계자, 지역 조합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영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시설 현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루 80t 처리 규모의 가공시설이 구축된다. 30t급 건조기 5기와 500t급 사일로 8기를 설치해 건조·저장

기능을 강화하고, 수확기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부지 면적은 2만9977㎡, 건축 면적은 5259㎡ 규모로 조성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원료 수집부터 건조·저장, 가공까지 이어지는 일괄 처리 체계가 구축돼 품질 관리와 유통 효율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통합RPC는 2008년 지역 8개 농협이 공동 출자에 설립된 이후 부수매와 유통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에는 2만4000t

규모의 벼 매입을 추진하며 지역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해남, 담양, 강진, 나주, 보성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RPC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2020년 이후 총 1000억원을 투입해 기반을 확충했고, 올해는 함평 등 4개소에 195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쌀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 이후 유통 단계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중동 정세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확대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세 부담 완화 세무조사 연기·행정제재 유보 맞춤 지원

전남도가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최근 중동정세 영향으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동정세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채납처분 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최대 1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고지유

예와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기업 상황에 맞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납부금 분납과 관련 사업 제한, 행정제재 유보 등 추가 행정지원도 병행한다.

전남도는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기업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중심 지원과 함께 필요 시 직권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열 전남도 재정과장은 “중동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중동 전쟁 악재 속 소비심리 회복 둔화

소비자심리지수 '110.1' 15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경기판단지수 등 부정적

중동발 긴장 고조로 유품과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회복세를 이어가던 광주·전남지역 소비심리가 한풀 꺾였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지난해보다 5.6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12.1p) 이후 가장 많이 하락한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평균보다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도 107.0으로 전월 대비 5.1p 하락

했다.

지난달 대부분 상승 수치를 보여준 지수들은 대부분 하락으로 전환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5로 지난해보다 2p 하락하고 생활형편전망지수는 100으로 3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101)는 전월보다 4p 떨어지고 소비자출전망지수(113)도 2p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지수(91)는 9p, 향후경기전망지수(98)는 10p 각각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지수(93)는 8p 내려가고 임금전망지수도 117로 전월대비 4p 하락했다.

지난달 25p 폭락했던 주택가격전망지수(86)는 이번 달도 4p 내려갔다.

다만, 금리전망지수(104)는 전월과 동일하고 물가수준전망지수(139)는 4p 상승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협상호금융, '희망대출' 출시 최대 5000만원·연 2%대 금리

농협상호금융은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농업인을 위한 포용금융 상품 '농심천심 희망대출'을 26일 출시했다.

'농심천심 희망대출'은 전국 농·축협에서 농업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중앙회의 이차보전을 통해 최대 연 2% 수준의 금리 지원이 제공된다. 영농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공급 규모는 1조원이다.

농협상호금융은 이번 상품 출시로 2만 명 이상의 농업인이 연 2%대 저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는 0.5%p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미래 농업인 육성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윤성훈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포용 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2026해피버스데이' 발대

담양서 의료봉사·재능기부 취약계층에 쌀 150포 전달도

농협 전남본부는 26일 담양농협에서 담양읍 농업인과 행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해피버스데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과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정국 담양군 부군수, 정명영 담양군의회의장, 도의원, 김법진 담양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출범을 함께했다.

평양예술단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 발대식에서는 농촌왕진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공됐다.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양방 진료와 수액 처치, 한방약 구미 지원 등 통합 의료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대한의료봉사회는 구강검진과 치료치료를 진행했다. 협약 안경점도 정밀 시력검사와 돋보기를 지원하며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왔다.

재능기부 활동도 이어졌다. 순천제일대 토탈부터미용과 학생들은 손케어와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했고,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학과 학생들은 직



농협 전남본부는 26일 담양농협에서 담양읍 농업인과 행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해피버스데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접 준비한 빵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전했다.

이와 함께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담양읍 취약계층에 약 500만원 상당의 쌀(10kg 150포)도 전달됐다.

해피버스데이는 농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시·군, 농협이 협력하는 농촌 왕진서비스 사업에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결합한 농협 전남본부의 대표 농촌 복지모델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을 찾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심천심' 실천 사업으로

확대·육성되고 있다.

이광일 본부장은 “농업인을 위해 헌신해준 의료진과 대학생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약 대학,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농촌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농촌왕진서비스는 지난 12월 서명암농협을 시작으로 전남 17개 시·군에서 총 70회 운영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0회가 해피버스데이에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13개 시·군에서 40회 운영됐고, 해피버스데이는 5차례 실시된 바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농협금융, 1조원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내달 5000억 1호 펀드 출범...직·간접 투자 병행

NH농협금융지주가 범농협 계열사의 출자를 바탕으로 1조원 규모의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투자에 활용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계까지 자금을 투입해 사업 초기부터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 방식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병행한다.

직접투자를 통해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참여하는 한편, 간접투자는

금융당국의 정책성 펀드 운용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협금융은 다음달 안에 5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 조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이 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